

시사초스트

강북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 다동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처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날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부회)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동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되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6대 의원들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민생처리를 함께 있어 소극적이거나 불만 부딪힌 채의 사안 등을 조사하여 의원 차원에서 건의·계산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의뢰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본회의에서 제안 되었으며 구청 위원 및 세부 운영계획 등을 담은 활동 계획서는 자기 본회의에 부여하여 승인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북구의회는 새체계 구성된 6대 강북구의회에의 구성에 맞춘 홈페이지 구축 관화에 따른 보고회를 갖고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제6대 의원 소개, 주요 콘텐츠 변경은 물론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 제공으로 의정 활동을 좀 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강·연차별급시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할다 및 시각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홈페이지를 접근하는데 용이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구축도 함께 완료하였다.

강북구의회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상인지 교육 실시

강북구의회(의장 유근성)는 지난날 29일 9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의원 3층 의원휴게실에서 진행된 3층 의원휴게실에서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상인지 교육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는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상담위원의 변신진 교수와 성희롱 예방교육과 강연자 교수에 성인지 교육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되었다.

박보생 김천시장 및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 강북구 방문
자치단체 발전과 의회간 협력 다짐



강북구의회 유근성 의장은 7월 30일 오후 1시 의정실에서 김천시장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위해 방문한 박보생 김천시장 및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 등을 영접하고, 양 자치단체의 발전과 의회간 협력을 다짐하는 등 분위기를 나누었다. 유근성 강북구의회 의장(중)이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좌)과 박보생 김천시장(우)에게 본회의장을 소개하고 있다.

칼럼

지방자치제 뿌리내리려면 정당공천제 없애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의 불복으로 행정의 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종장과 민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계속 밀고 있다. 종장과 민정들은 구청과 동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 지리한 후보가 단체장이 되면 대항이 없던 그들이 못한 경우 예외가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종부리 민주당의 주역들이 사임은 종장과 민정들이었다. 그런 만큼 선거 이후 자치단체장들은 종장과 민정들이 최고 무면허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의 연속성이 이뤄질 것이라 지방의 일선 계획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 선거가 끝난 이상 지역발전은 물론 종장과 민정들을 포용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신속한 자치행정이 계속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각 지자체의 의원들이 예, 아로 갈라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각 지방에서 청신공과 농약에 맞춘 인명들을 통해 왔다. 그런데 정당 공천으로 인해 예, 아로 갈라지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들을 그대로 재워서 난감하여 되고 있어 공무원들과 혼동, 그리고 민정들이 붓잡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에서 주민 밀착형 행정자를 볼 수 있는 종장과 민정들의 일선 고작 월 1회 정도 동사무소 회의와 지자체 집행총회 때 배부하고 연 2회 정도 민정일 통치서 배부 등 구성원과 동장의 심부름같은 역할에 머무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곳곳에 떨어진 이회창단체의 입주대표회의와 활동으로 그들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일부 시가 호부형사 정식으로 대표회의를 선관일 정도로 지자체의 방만 운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종장과 민정

들의 역할은 이런 정신 나간 지자체의 파구잡이식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민선국회의장들이 싸워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 단체장들은 이들을 통해 구청 등의 주요시책, 현안 사업들이 주민에게 홍보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인 자치행정이 아니라 양방형 자치행정이 이뤄지도록 종장과 민정들에게 보다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으로 그룹으로부터 생략된 민정들을 듣고, 또 한편으로 그룹을 통해 구청 등의 정책 활동 및 행정 시스템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단체장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화려한 자칭의임을 비롯한 단체장들의 청담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일선들을 통해 자칭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며 특히 본으로 사는 청담 공천으로 당선이 되면 당의 눈치 보로 청담의 눈치 보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부리 민주당은 장악 될 수 없는 것은 변 한 일이다.

일기적 공약의임으로 나뉘는 의미에 접해서 자칭의 계기도 청담이 못한 공천에 의한 의미는 변한 것이다. 청담 공천으로 인한 각 지자체들의 물리가 남아있지 않음도 청담에 반영 해 주기 위해서 일부 단체장들이 비로소 들어올 것으로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심상인

경기도부부부부

서울시의회-자치구, 소통의 장을 열다

의정단, 구청장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의장 : 이광래, 민주당) 의정단은 8월 3일 오전 11시, 세종홀에서 서울시 구청장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의정단(의정대리장, 양준숙부의장, 김우성부의장)과 상임위원장(11명), 서울시 자치구 청장(25명)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며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예산의 우선 순위에 초점 등자치구와 재정관련 협력을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와 건전 재정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구청장에게 구입금이 가지 않는 협약이 전하는 학교생활과 농촌을 살리는 친환경부산물사 산업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민간단체에 서울 민-관-기 파트너십을 위한 의정자 제안할 것이다.

'소통'과 '협력'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청장과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회 할 것이며, 최초로 서울시의회와 '게치트레이지언' '열린의회', '정책위원회'를 통해 부처부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집중되고 있다.

홍남희기자 hongnamhi@net.com

강동구의회 홍보팀 신설



강동구의회(의장 심영재·사민)는 2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홍보팀을 신설했다.

관련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구의회사무국 조직은 기존의 3개팀(의정팀, 의사팀, 의안팀)에서 팀 및 임명배수가 없이 일부 팀간 업무조정 등을 통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으로 개편하게 된다.

개편내용은 의안팀 업무중 의안관련 업무는 의사팀으로 이관하여 의사팀부와 홍보팀에 운영한다.

이승호기자 issh@hannet.net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통과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키로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4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최선 운영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설명에 나섰다.

최 의원은 "강북구 집행부가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편의적 해석,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불편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민원의 부적정 처리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수렴하

고 논의·처리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상에 걸 맞는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4인 이하이며, 다음회기에 구성.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의결을 거쳐 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